



한국 재래닭을 보존하는 것은 나의 소명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닭들이 산업화, 현대화에 밀려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에는 전국에서 재래닭을 사육하고 있는 250여 농가가 모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재래닭을 보존하고, 고유의 맛을 국민들에게 보급시키고자 재래닭보존연구회가 발족되기도 하였으나, 한국 재래닭이 희귀성은 있으나 경제성은 물론 혈통이 확립되지 않았던 관계로 사육업자들이 2~3년을 주기로 업종 전환을 하였고, 외국으로부터 토착화된 토종닭(재래닭)에 밀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재래닭의 대피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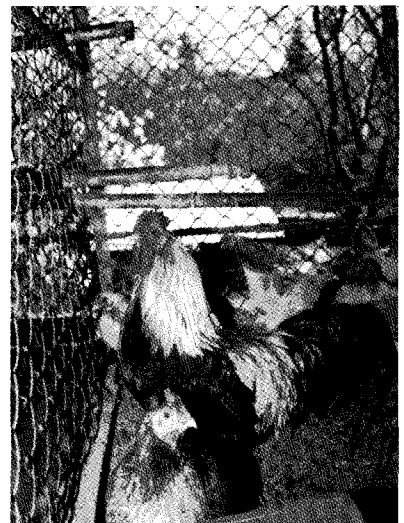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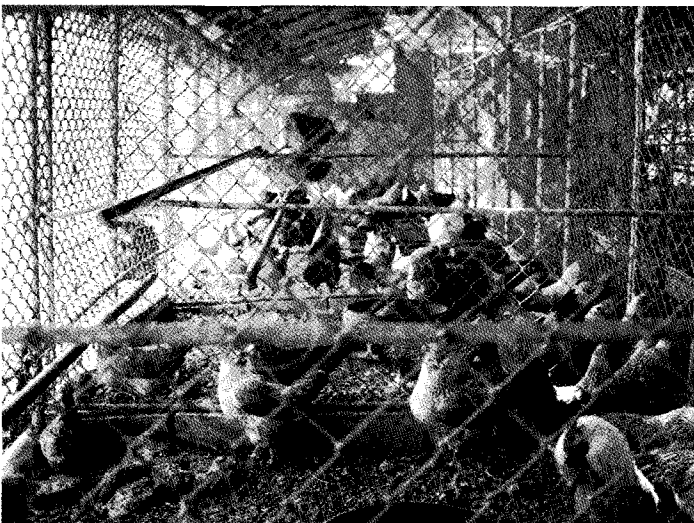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재래닭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홍승갑 사장(현인농원, 65, <http://www.pajukoko.com>)의 한국 재래닭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최근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전국을 뒤흔들 무렵, 10여종이 넘는 재래닭들을 수십km 떨어진 북쪽 안전지대로 분산시키기도 하였다.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발굴하고 육종사업을 통해 고정화시킨 닭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현인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들은 백색, 흑색, 회갈색, 황갈색, 적갈색, 은계1호, 은계2호, 오골계 등이 있으며, 외래닭으로는 남경사모(황갈색, 적갈색, 흰색), 소국, 투계가 있고, 기타 조류로는 금계, 은계, 칠면조, 호로조, 거위 등이 농장 주변에서 사육되어지고 있다.

조선닭을 찾아 천리길

홍승갑 사장이 양계에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부터 50년전 당시 서울수복 이후 1955년 초등학교시절 서울시립대학교(당시 시립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집에서 관리인을 두고 산란계 1천수를 사육, 군납을 하면서 제법 큰 규모로 양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후 군을 제대하고, 산양 등 타 가축을 기르기도 하였으나 양계를 버릴 수 없어 한 동안은 오골계를 키우기도 하였다.

홍승갑 사장이 재래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5년전인 40대 초반 중국 명나라때 의학서인 본초강목(本草綱目)을 탐독하던 중 '조선에 평택닭이 약효가 우수하다' 는 내용을 읽고, 60년대까지만 해도 경기도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황계(黃鷄) 등을 찾아 나서면서 부터이다.



▲ 한국 고유의 재래닭들이 사육되고 있는 농장 광경



부인 김두희씨와 홍승갑사장 ▶

그러나 국내에는 이미 산업화라는 명목아래 외국의 품종들이 이미 국내 시장을 점령한 상태였고 지역적으로 토종닭, 재래닭이라고 판매되는 닭들 또한 외국에서 순종을 들여와 국내에 맞게 토착화시킨 품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급변하는 산업화에 밀려 우리 고유의 닭들이 멸종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국을 수소문하면서 조선닭을 찾아 나섰다. 처음 조선닭 3마리와 종란 1편을 구해 부화를 시작했고 색깔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한 때는 2,000여마리를 넓은 야산에 풀어 키우면서 집단 선발을 하였고, 이후부터는 우리에 가두어 놓고 정밀하게 선발을 반복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25년동안 10여종이 넘는 국내 재래닭 색깔을 복원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민화속의 닭을 보고 선발작업

전국으로부터 종란을 수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통수단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종란을 얻는데도 무척 힘이 들었다. 한번은 종란 1개에 1만원을 주고 구입할 정도로 대가를 톡톡히 치루기도 하였으며, 남부지방이나 강원도 깊숙한 산골까지 수소문하여 가져온 종란들이 비포장도로를 달린 탓에 부화가 안되어 헛수고를 겪은 적도 여러번 있었다. 또한 사업을 해가면서 재래닭 사육에 뜻있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던 탓에 특이한 재래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면 이미 농장에서 분양한 닭들도 많았다.

홍사장은 과거 민화속에 나오는 닭들을 보고 당시의 닭들을 복원해 나가는가 하면, 어렸을 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국내 재래닭을 떠올리며 복원사업에 열정을 쏟아왔다. 홍사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는 신중한 작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한국의 재래닭을 찾아 다녔지만 한가지 꽃닭(숫쟁을 닭음)을 찾지를 못했고, 복원을 시키려해도 정말 어려운 작업이라면서 60년대 이전 우리나라에 흔하게 돌아다니던 꽃닭이 사라진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홍사장이 재래닭 복원사업에 몰두하는 동안 부인 김두희 여사의 역할은 남달랐다. 1973년 결혼 이후에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맡아주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운용하면서 농장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큰아들 흥현식씨가 한국재래닭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고 나서면서 홍사장으로서 큰 힘을 얻고 있다.

자연농법을 이용한 사양관리

홍사장은 자연농법을 양계에 접목하여 사양관리를 해오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황토를 이용해 토착균을 배양, 토곡을 만든 후 여기에 쌀겨, 활성탄, 목초액, 맥반석, 키토산 등을 넣고 2차 발효시켜 사료와 자가배합하여 급이하고 있는데, 작업과정이 힘들지만 20여년을 같은 방법으로 길러와 몸에 배인 상태이다.

이러한 자연농법을 이용한 사육방법을 적용한 이후 놀라울 정도로 닭들이 활기를 띄며, 항생제 등 어떠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사료(史料)적 가치 충분, 국가적 육성책 시급

홍사장은 재래닭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의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내 순수 재래닭은 사육일수가 길어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일반 개량재래닭이나 토종닭들과 같은 조건에서 키우더라도 맛에서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재래닭의 희귀성은 물론 육질을 부각시키고 특수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예로 일본, 프랑스, 대만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내 전통닭을 국민들의 먹거리로 정착시켰으며, 일부에서는 지역적으로 사육수수와 판매를 제한하면서 재래닭을 보호하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 재래닭은 사료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만큼 상업성과 수익성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일반 재래닭과의 차별화를 기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한국재래닭연구회(회장 오봉국)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홍사장은 과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뜻을 모았던 회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내의 재래닭을 보존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고 있는 농장들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빼앗긴 장명계와 장미계

홍사장은 과거 우리나라 닭들을 찾는데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한번 울때 24초를 운다는 장명계(동춘홍)와 꼬리가 5척을 넘는다는 장미계 등을 복원시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찾는 한 작업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이미 일본의 닭으로 알고 있는 장명계와 장미계(국내에서 일부 사육되고 있음)는 우리 고유의 닭들이었다.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국내의 닭들중 가치가 있는 닭을 가져가 자기나라에 맞게 정착을 시켜왔으며, 한일합방 이후에도 국내의 닭 사육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국내의 재래닭에

대해 주기적으로 연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미계가 우리나라 닭이라는 것은 서기 3세기 중엽의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보면 출세미계기미오척여(出細尾鷄已尾五尺余)라하여 ‘한국에 진기하고 아름다운 꼬리가 긴 닭이 있는데 그 꼬리는 5척을 넘는다’ 라는 문구가 나오듯이 한국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닭들이 많았다.

닭 역사 박물관 추진

홍사장은 구절초, 산마늘 등 야생화를 가꾸면서 색다른 취미 활동도 하고 있다. 홍사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야생화협회 회장직을 맡아 일해왔고, 오래전부터 유기농법에 관심을 갖고 자연농법을 적용시키는 등 친환경적인 농업기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994년 본회 및 정부에서 추진한 재래닭 고품질 육용화연구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그 동안 연구해온 다양한 종류의 재래닭과 종란을 국가(축산연구소)에 기증하여 종자를 보존해가는 국가정책사업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였으며, 지난 1991년 대한양계협회에서 주최한 제1회 한국양계박람회부터 지난 2003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까지 7회에 걸쳐 재래닭을 전시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한국의 재래닭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닭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닭사육시설을 수집하는데도 남다르다. 지금까지 다양한 닭 어리장을 수집하였으며, 기타 일반 농가에서 사용하던 토속 물품들을 비롯해 이미 수백점을 모이는 상태이다. 따라서 홍사장은 앞으로 닭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분야와 일반 토속물품이 어우러진 민속 박물관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래닭이 정부의 지원아래 산업화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애완용 닭으로 산업화를 시킬 계획도 구상하고 있다. 즉, 한 가정에서 1평 정도만 확보하면 다양한 종류의 재래닭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토종의 재래닭을 살려가는 일은 저의 소명입니다. 남은 여생이 허락하는 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의 재래닭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의지를 다졌다. **양계**

취재 | 김동진 기자/차장 (dj@poultry.or.kr)



▲ 전국에서 수집한 닭 어리장들(닭 박물관을 추진중에 있다.)